싱그럽고 다채로운…생명 돋아나는 초록빛 봄

신세계갤러리 '또 다른 그린'
강가연·김건일·김제민·박형진 등
작가 6명 참여…내달 3일까지

겨우내 무채색이었던 자연에 점차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며 주변의 나무와 꽃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3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을 여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녹음 가득한 자연을 저마다의 독특한 색감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여섯 명의 작가와 함께 '녹색(綠色, GREEN)'을 주제로 한 '또 다른 그린' 전을 열었다. 강가연, 김건일, 김제민, 박형진, 이지연, 임현경 등 6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다.

계절마다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우리를 맞이하는 자연 안에서 녹색은 각종 나무의 잎사귀와 풀, 잡초와 이끼 등 자연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이다. 녹색은 자연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인식되며,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생명력 등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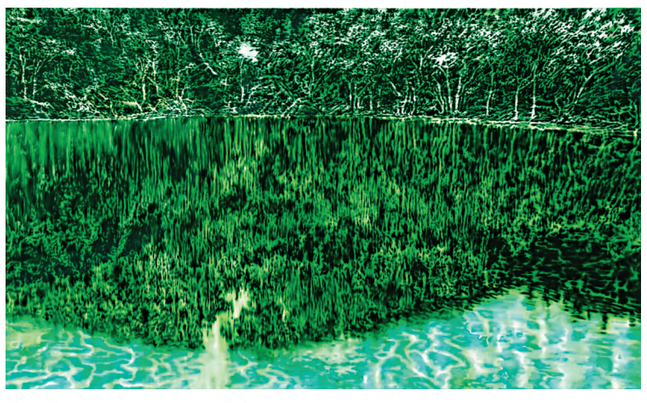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주변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른 색감과의 조화에 따라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자연 속의 녹색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가연 작가는 나무의 재, 모래, 흙과 같은 실제 자연에서 채취된 안료를 사용해 일상 속 자연에 대한 중요성과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산책하면서 느꼈던 자연의 촉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지연 작가는 자연 소재의 질감을 활용해 색다른 자연의 모습을 구현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복잡한 '상상의 숲'을 매개로 인간의 기억과 마음의 구조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김건일 작가, 정원의 풍경과 나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임현경 작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의인화해 일상을 위트 있게 보여주는 김제민 작가는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며 공감을 자아낸다. 박형진 작가는 녹음이 가득한 정원 곳곳에 숨겨진 작가의 애정 어린 추억을 배치해 잠시 잊고 지냈던 동심을 환기시킨다.

임현경 '정원의 장막'

박형진 '남겨진 정원'


김건일 '눈가에 이는 바람'

6명의 작가가 보여주는 전시는 편안함을 전달한다. 또한 독특한 렌티큘러 작품은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의 시각에서만 보이는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각적인 휴식처가 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최진화 기자

지맵 9일 이이남 작가와 대화
작품속 '빛' 통해 대중과 교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은 오는 9일 오후 2시 1층 미디어라운지에서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이이남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의 연계 행사로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이이남 작가는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인간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내면에 스민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제적인 양극화와 팬데믹 이후 고립과 단절을 겪은 동시대인들의 내면에 집중한 작가는 작품 세계 속 어둠을 밝히는 '빛'을 통해 대중과의 교감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의 참여 인원은 최대 30명이며, 행사 당일 현장 선착순 참여로 진행된다.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이이남의 특별전시를 비롯한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는 예술가에게 주어진 아픈 기억을 예술적 실천으로 승화한 과정과 그 결과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작가와의 격식 없는 대담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예술의 가치를 새삼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맵과 이이남 작가는 보다 깊이 있는 교감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4월 중 미술평론가 등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하는 좌담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문화 브리핑

◇12만KM-광주=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청년작가 김건 개인전=8일까지 금호갤러리

◇우림회원전 '오색의 날개'=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아트-광주=10일 오후 7시 30분, 11일 오후 2시·오후 5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23 신춘 음악회-광양=10일 오후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소프라노 김민지·테너 윤병길 듀오콘서트 '봄이 오는 길목에서'=10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신춘(新春)'=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백설공주-목포=11일 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3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교류음악회=11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광주국악상설공연-타악그룹 얼쑤=11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대니초 스탠드업 코미디 전국투어 '코리안 드림'=11일 오후 6시 피크뮤직홀

가사노동수당제도 정책토론회
내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실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의회와 공동주최로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을 위해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의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 주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 '광주시 수당제도와 수혜층 분석(광주여성가족재단 김영신)'이다.

토론 좌장은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찬기 빛고을 50+센터장, 구은정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익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나라 기자